

초록번호 : III-1-2

제 목	국 문	우리 나라 전공의 수련 실태에 관한 조사 연구	
	영 문	Environment and condition of graduate medical education	
저 자 및 소 속	국 문	김창엽 ¹⁾ , 윤석준 ¹⁾ , 백한주 ²⁾ , 이준구 ³⁾ , 백승호 ⁴⁾ , 박수경 ⁵⁾ , 김철웅 ⁵⁾ , 정기현 ¹⁾ , 조홍준 ⁴⁾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¹⁾ , 서울의대 내과학교실 ²⁾ , 연세의대 내과학교실 ³⁾ , 울산의대 가정의학과학교실 ⁴⁾ ,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⁵⁾	
	영 문	Chang-Yup Kim ¹⁾ , Seok Jun Yoon ¹⁾ , Han Ju Baek ²⁾ , Jun Gu Lee ³⁾ , Seung Ho Baek ⁴⁾ , Su Kyoung Park ⁵⁾ , Chul Woung Kim ⁵⁾ , Ki Hyun Jung ¹⁾ , Hong Jun Cho ⁴⁾ Department of Health Policy and Management ¹⁾ ,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²⁾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Yonsei University ³⁾ Department of Family Medicine, Ulsan University ⁴⁾ School of Public Health, Seoul National University ⁵⁾	
분 야	보건관리	발 표 자	윤석준(전공의)
발표 형식	구연	발표 시간	15분
진행 상황	연구완료 (o), 연구중 () → 완료 예정 시기 : 년 월		
<p>1. 연구목적</p> <p>우리 나라의 임상분야 전공의 수련실태를 졸업후 의학교육의 관점에서 파악해 보고 이를 병원별 규모 및 특성과 관련지어 분석하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p> <p>2. 연구방법</p> <p>전공의 수련실태, 업무량, 직무 만족도 등의 내용으로 전국의 수련병원 전공의를 대상으로 1996년 5월에서 7월 사이에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대상은 단순무작위표본추출(simple random sampling)으로 전국 전공의 전체의 절반수준인 8,000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최종 설문의 응답자는 전국 28개 병원의 1,859명으로 응답률은 23.2%였다. 설문에 응답한 자료는 기술분석과 병상규모에 따른 분산분석을 시행하였다.</p>			

3. 연구결과

1) 수련과정상 의문나는 사항에 대해 배우는 사람은 윗년차가 46.7%, 스스로 해결함이 22.9%, 지도전문의 14.5%의 순이었다.

2) 수련받고 있는 과의 공식적인 프로그램은 500병상이하의 병원이 집담회(P=0.0141), 지도전문의강의(P=0.0001), 교육을 위한 타병원 파견(P=0.0001) 항목에서 유의하게 적었다.

3) 병원 규모별 전공의 수련과정의 도움정도에 대한 만족도는 500병상 이하의 병원에 근무하는 전공의들이 연구 및 논문제출(P=0.0001), 집담회(P=0.0007), 윗년차 동료와의 토론(P=0.0093), 외래환자 진료(P=0.0038) 항목에서 유의하게 만족수준이 낮았다.

4) 의학적 지식과 수기습득의 가장 큰 장애는 과중한 업무로 인한 육체적 피로(57.2%)를 가장 높은 우선순위로 선택했으며 교육프로그램의 부재를 지적한 응답이 두 번째로 많았다(19.0%).

5) 수련과정의 적절성은 수련의 질 혹은 양에서 문제가 있다고 응답한 비율이 전체 응답자의 55.0%였다.

4. 고찰

이상의 결과를 통해 우리 나라 전공의 수련병원 중 500병상 이하 중소규모 병원의 전공의들은 자신들의 수련실태에 대해 그보다 큰 규모병원에서 수련받고 있는 전공의에 비해 만족도가 낮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전공의 수련과정의 문제가 비교적 규모가 작은 병원에 보다 심각하게 있을 가능성이 높음을 나타낸다. 보다 나은 양질의 전문지식을 갖춘 의사양성을 위해 전공의 수련병원의 자격요건 강화와 함께, 전반적인 수련환경개선을 위한 보건의료체계 내외의 제도적 개선이 시급하다고 판단된다.